

남구, 올해부터 하계방역 '5개 권역' 확대 운영...인력·장비 늘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올해부터 하계방역 권역을 5곳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하계방역에 나선다.

남구는 "효천1·2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도농 복합지역인 대촌동의 환경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재편해 신규 권역으로 편성했다"며 "하계방역 권역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세분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고 밝혔다. 권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관내 방역 면적은 60.96㎢에 이른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월산동, 백운1·2동까지 3.1㎢이며, 2권역은 주월1·2동과 월산4·5동을 포함해 3.44㎢, 3권역은 방림1·2동 및 봉선1·2동으로 3.73㎢로 집계됐다. 특히 4권역은 효덕동과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까지 50.69㎢에 달하는데, 이는 관내 전체 방역 면적의

83%에 해당한다.

이에 남구는 4권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권역 일부와 4권역을 전면 재편, 올해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에 나선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백운1·2동으로, 2권역은 주월2동과 월산동, 월산4·5동, 3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 4권역은 주월1동과 진월동, 효덕동으로 묶으며, 5권역은 송암동과 대촌동으로 편제했다.

하계방역 권역 확대에 방역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도 늘었다.

남구는 관내 5개 권역의 집중 방역을 위해 올해부터 업체 1곳을 추가 모집, 5개 방역 대행업체와 손잡고 오는 5월 2일부터 120일간 빈틈 없는 방역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방역 인원은 권역별 4명씩 총 20명이며, 현장에는 차량용 탐재형 동력 분무기 5대와 수레용 연막기 12대, 수동식 분무기 18대, 휴대용 분무기 13대, 전동식 분무기 11대를 투입한다. /정희태 기자

북구,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역량 결집해 경제위기 극복 나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함께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해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가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는 지원기관별 사업들을 소상공인 단체와 적극 공유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과 협업해 마련됐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북구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참여자 간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안내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해 중앙·지방 등 총 9개 지원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총망라돼 소개됐다.

또한 북구는 앞서 지난 3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과 구축한 유기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공유해 홍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과 맞춤형 홍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동구, 시인 문병란 기획전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산동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초등학생들이 주인공이 된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기획전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 그림책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발간에 따라 기획된 행사다. 앞서 동구는 지난 1월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인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획 프로그램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를 진행했다. 동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그림들을 책으로 한데 엮은 그림책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시아, 그림아, 함께 놀자' 프로그램에서는 시인의 시 한 편당 4명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고, 시 8편에 3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원시 제목은 공개하지 않고 오직 시간 제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완성된 그림에는 아이들로 해금 직접 제목을 붙이도록 했다.

기획전 개막 후 아이들 저마다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아 풀어낸 그림과 작품 제목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고 탄성과 흥미를 이끌어내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임택 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보여주듯 한결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총길이 7.7km의 맨발로(路)를 완성했다. 서구는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걸에 맨발로'를 전체 18개 동 24곳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구청 제공

'맨발 성지' 서구, 맨발로 7.7km 조성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총 7.7km의 맨발로(路)를 완성했다. 서구는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걸에 맨발로'를 전체 18개 동 24곳에 조성했다.

서구는 지난 2022년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을 시작으로 2023년 금호·쌍학어린이공원을 비롯해 10개 동 14곳에 맨발로 및 황토체험장을 조성했으며 풍암동 금당산에는 4.2km

에 달하는 맨발로가 조성됐다. 올해 푸름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맨발로를 조성했고 연말까지 농성광장, 효사·운천어린이공원에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외에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맨발걸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양동·효광·광주서·주월·금당초등학교와 광덕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세족장과 안내시설을 4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서구는 오는 5월11일 금당산 일대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제1회 도심맨발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서구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맨발로 청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대상 '맨발로 키움학교' 운영을 비롯해 걷기와 요가, 명상을 결합한 맨발치유 프로그램,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맨발로 멘토링 사업도 추진한다. /이가영 기자

광산구, 민간 협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를 올해 다양한 시설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달고나(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커피숍 21개소를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로 지정,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사업 효과와 장점 극대화를 위해 광산구는 올해 커피숍과 더불어 편의점으로 쉼터를 확대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벌크커피'와 더불어 BGF 리테일 전남지역부외도 손잡고 커피숍, 편의점 32개소를 신규 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광산구에선 총 53개 휴게 쉼터가 운영된다.

또 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안전교육을 수료한 노동자에게는 안전용품 지급한다.

광산구는 이달 참여기관 협약식을 시작으로 휴게 쉼터 운영을 본격화하고 6월 참여자를 모집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공정고과 상식